

2021년 5월 2일(1104호)	부활 제5주일	미 사 시 간	
사 무 실: 286-0577 주임신부: 김용민(레오나르도) 전교수녀: 허비비안나 사목회장: 장병련(가밀로) 연령회장: 이태복(요한) (010-3540-5040)	양 곡 성 당 주 보	평일미사	월,수,금:오전10시 화,목 : 저녁7시30
		주일미사	특전(토): 저녁6시
			새벽미사: 6시30
			교중미사: 10시30
교황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셉 성인의 보편 교회의 수호자 선포 150주년 기념 6. 노동하는 아버지 첫 사회 회칙인 레오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 때부터 강조되었던 요셉 성인의 특징은 노동과의 관련성입니다. 요셉 성인은 목수로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노동의 결실로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의 가치, 고귀함, 기쁨을 요셉에게서 배웠습니다. 취업이 다시 한번 뜨거운 사회문제가 되고, 수십 년간 번영을 누렸던 국가에서조차 실업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고귀한 노동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요셉 성인은 노동의 모범적 수호자이십니다. 노동은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수단이며,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앞당기고,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전시키며 사회와 형제적 친교를 위하여 그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호 단위인 가정이 목적을 달성할 기회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가정은, 특히 어려움, 갈등, 별거, 심지어는 가정 해체에 특히 취약합니다. 모두가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노동을 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노동하는 이들은 하느님과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위기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발견하라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요셉 성인의 노동은, 몸소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노동을 업신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많은 형제자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증가한 실직은 우리가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요청입니다. 노동자이신 요셉 성인께, 그 어떤 젊은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가정도 노동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표현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계 속>			

♣전례 봉사자 안내

일 자	새벽미사		교중미사		미사안내
	해설	독서	해설	독서	
5월 2일 (부활 제5주일)	-	이후배(세라피나) 이영희(효주아녜스)	조경아 (아마다)	최택호(요셉) 김영숙(카타리나)	사랑하올 어머니pr.
5월 9일 (부활 제6주일)	-	이후배(세라피나) 이영희(효주아녜스)	박진태 (스테파노)	강신용(베드로) 최춘이(요안나)	천상의모후 pr.

♣우리들의 정성

지난주 미사참례수	교무금	주일헌금
87명	1,191,000	564,000

♣반별청소안내

일자	반구역	일자	반구역
5월8일	3구역2반	5월15일	1구역1반

♣세대별 교무금 납입(4/24~ 4/30) 14명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성명	월
조부자	4	공정화	4	박원빈	4	유기년	12	김도록	5	조성순	4	오영태	4
김미선	4	손강희	5	박현수	4	천성엽	4	김지후	4	이수갑	5	장형숙	4

공 지 사 항

■예비신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신자 봉헌서는 성전입구에 있습니다.

■교중미사(5/2일)후 잡초제거 작업 및 벌레퇴치 방역 있습니다.

■미사시간 변경안내: (5월9일 주일부터)

◆주일 새벽미사 6시30분 → 주일 오전9시 미사로 변경됩니다.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바치기

◆5월 한달 미사 후 성모당 앞에서 묵주기도 바칩니다. (토요일, 주일은 제외)

◆묵주기도 주송은 그날 해설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5월 9일(일) 낮 미사 후 만70세 이상 어르신께 선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지침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미사 참석자 명단작성,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청 신립기금 납입: 1세대당 1년치 교무금 납부(분할 납부가능)

◆김도록(마리아), 천성엽(데오토로), 이수갑(요셉)

■안녕히 가십시오.

◆서영숙(안나) → 서울대교구/ 시흥4동

■본당청소(3구역1반):

◆주정희(데레사), 박정숙(세라피나), 김명선(아네스), 박진태(스테파노), 김미선(글라라) 이안녀(요세피나) 6분이 수고하셨습니다.